

수목대전 열고 청년작가 아트페스티벌 추진

최대 예술조직 광주미협 회장선거 공약 살펴보니

단독입후보 이병오, 공약 화합·복지 등에 방점
협회 임원 여류 적극 반영·문화상품 개발 주력
원로 우대방안 모색…20일 광주시립미술관서

광주문인협회 회장 선거가 지난 17일 끝난데 이어 20일에는 지역최대 예술조직인 광주미술협회 제13대 회장선거가 펼쳐지는 등 예술단체 수장 교체가 한창이다. 대다수 입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어려운 청작환경에 내몰린 회원들을 보듬으면서 청작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젊은 회원이 많지 않아 탄력성이 대기 악화된 조직의 활력을 위한 혁방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선거인 만큼 예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문인협회가 2파전으로 치러진 반면, 광주미술협회는 단독 입후보한 상황이어서 친성과 반대를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광주문인협회 회장 선거에서 차기 회장으로 뽑힌 박덕은 후보가 광주미술협회를 위한 제안공모사업 및 행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과 정관 개정 통해 회장 연임으로 생기는 폐단 해소 등의 공약이 눈에 띠었던 것처럼, 광

주미술협회 차기회장에 입후보한 도전자의 공약 중 눈에 띠는 공약을 정리, 소개한다.

현재 광주미협은 이병오 후보가 단독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대동화합과 복지, 선진 등 세 가지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공약 중 원로와 여성, 청년 작가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실현과 대한민국 한국학대전의 수목대전으로의 명칭 변경 등이 주목되고 있다. 다만 미술시장 활성화 등 몇몇 공약은 매번 되풀이되면서 이 같은 만큼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로·중진작가 간 다투며 정례회를 꾀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류 작가 국제미술 교류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광주문인협회 회장 선거 전 주진과 협회 임원을 30% 이내 반영, 광주비엔날레 전시참여를 위한 주진위 구성 등을 주력하면서 여류작가들의 위상 제고에 노력을 할 복안이다. 그리고 회원들의 문화상품 개발판매 및 아이디어 창구 마련에 나서고, 청년작가 행사 지원·방안 모색과



20일 치러지는 광주미술협회 제13대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병오 후보와 선거공약집 속 프로필.

국제 청년작가 아트페스티벌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내 소재 화랑과 미술재료점 등을 연계해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이버갤러리와 아트숍 운영, 사이버 미술경매 추진을 꾀하기로 했으며, 회원 전시회나 협회 정기행사 등을 메세나운동과 연

여러분께서 함께 달릴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약속보다는 결과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병 오 李炳五가 걸어온 길

호남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호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논문] 齊白石 문학화에 관한 연구

[경력]
광주미술협회 부회장, 불교미술원장 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전원남미술대전, 대한민국문화인화대전 초대작가
광주광역미술대전, 대전미술원, 광주미술원 역임
의회 하원연 미술상, 심의위원 역임
개인전 5회(서울, 광주)
국내외 단체전 및 기획전 150회(국내)

[국내]
대한민국미술대전 전선 및 우수상 수상(1988 ~ 1994)
광주광역미술대전 특선 및 대상 수상(1988 ~ 1994)
전원남미술대전 입선 및 우수상 수상(1982 ~ 1992)

[국제]
한국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한국문화재회회장
광주전통미술연합회 부회장

술장식품에 대한 엄격한 심의제도 도입과 추진방안 모색, 기업 메세나 운동 지원 및 홍보, 공공기관 미술품 설치 지원, 찾아가는 미술전 운영, 기획분과를 대내·외·국제팀으로 구성해 적극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술인프라 모색과 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등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처럼 다양한 공약을 내세운 만큼 실천방안 마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광주미협 역시 회원 노사회에 따라 신진작가 대거 영입 등과 일반 작가들의 전시를 위한 100평 이상의 큰 전시공간 마련이 시급한 과제들이어서 차기회장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하며 쓰고 있는 지금의 사무실 대신 조금 넓고 쾌적하며 영구 정착할 수 있는 사무실 마련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무실의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계약이 되 있으나 차기회장의 임기 1년을 남겨 두고 다시 재계약에 나서야 하는 형국이다.

올해 회장 선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권은 광주미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부여된다. 차기 회장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 선거 공지사항 및 이병오 후보 선거 공약집(공보물)을 회원들에 발송, 올바른 정보 제공에 착수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홍학관갤러리카페’로 새롭게 단장 첫 전시 열다

근대 광주 밝힌 상징적 공간 ‘홍학관’ 재조명
‘광주정신을 만나다…’ 전 1월 31일까지 열려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시 중 유독 ‘정신’(情神)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곳, 바로 광주다. 이 특별한 ‘광주정신’(光州情神)이 형성된 역사적 출발점이자 중심 공간이었던 옛 홍학관 자리에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정신을 만나다’: 홍학관’이라는 명칭으로 열리는 특별전은 15일 개막, 2026년 1월 31일까지 광주정신이 자리했던 터(현 홍학관갤러리카페)에서 진행된다.

홍학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부당함에 맞서 항

일 독립운동과 사회계몽운동의 횃불을 올렸던 상징적인 역사적 장소다.

1926년 성진회를 비롯해 1927년 신간회, 1929년 근우회 광주지회 등 수많은 항일·사회운동 단체들이 홍학관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이곳은 젊은 독립운동가들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다양한 사상·교육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진 장소로 광주 역사와 함께 했다.

또 1929년 11월 3일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바로 이 홍학관에서 계획되고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홍학관에서는 광주청년회, 광주노동공제회 등 청년운동의 양대 축과 광주여성아학, 광주노동아학이 자리했으며, 조선인의 힘으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인 광주제일고등학교의 출발 역시 홍학관에서 비롯됐다.

홍학관은 이별듯 단순한 건물을 넘어, 근대 광주 정신을 기우고 사회적 협안을 논의했던 광주 민주

운동의 뿌리였던 것이다. 이런 홍학관은 건물 자체가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던 홍학관을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 앞에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현재 옛 홍학관 터(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번길 8번지)에 자리한 ‘홍학관갤러리카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이번 첫 전시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잊혀 가던 광주의 근대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광주정신의 근원을 찾아보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에 이어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행철 홍학관갤러리카페 대표는 “105년 전 홍학관이 서 있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의 갤러리 카페를 열고 첫 전시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큰 의미”라며, “이곳은 지역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역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갤러리 카페를 통해 다시금 광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되살리고자 했다”며, 광주정신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1920~1930년대 청년활동의 중심지 홍학관 모습.

“회원 의견 폭넓게 수렴…작가들의 항해사 될 것”

광주문인협회 차기 회장에 박덕은씨 선출

광주문인협회 제15대 회장에 시인, 소설가, 평론가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을 펼쳐온 박덕은씨(사진)가 뽑혔다.

18일 광주문인협회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두 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기호 2번으로 도전장을 내민 박덕은씨가 기호 1번으로 출사표를 던진 현 회장 이근모 후보를 누르고 향후 900여 회원을 이끌 수장으로 선출됐다.

이근모 현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날 광주에 총 지하 방울소리 공연장(옛 서구청)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박덕은 후보는 총 473표 중 305표를 얻어 168표에 그친 이근모 후보를 137표차로 꺾고 차기 회장에 올랐다. 두 번째 도전 만에 광주문인의 중책을 맡게 됐다. 이근모 현 회장은 연임에 도전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박 차기 회장은 중앙일보와 새한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광주시민단체(523개) 총연합회 대표

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현승 문학상과 광주 문학상, 전남도문화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광주문인협회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었고, 박덕은 미술관 관장을 맡고 있다.

박 차기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회원 중심 협회 구축 △작품발표 공간 확대 및 공동출판회 연 2회 정례화 △홈페이지 정비 △광주문협 발전을 위한 제안공모사업 및 행사운영위원회 신설 △정관 개정 통해 회장 연임으로 생기는 폐단 해소 등을 내세웠다.

박 차기 회장은 선거 기간 동안 “모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경력과 연륜을 겸비한 자신이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가들의 항해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박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26년부터 3년 간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한 해 동안 문화예술교육으로 예술시민 성장 축하

광주문화재단 성과공유회 ‘…크리스마스’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19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서 2025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성과공유회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 한 해 동안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단체·교육생·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연말 파티형 성과공유회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참여단체 중심의 성과 공유를 넘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교육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예술시민 출업식’으로 성장한 과정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예술시민문화예술교육 및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창의

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등 총 4개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와 교육생, 컨설턴트,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원사업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2026년 문화예술교육 이전다도출, 4개 지원사업 참여단체의 우수 사례 발표, 문화예술교육 참여 교육생을 위한 ‘예술시민 출업식’. 참여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파티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등이다.

특히 ‘예술시민 출업식’에서는 한 해 동안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에게 출업증서를 수여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변화한 개인의 성장과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